

로그인 회원가입

BTN바로가기 BTN온에어 편성표

BTN 뉴스

오전 7:00, 10:00 / 저녁 7:00, 10:00

검색 할 기사를 입력하세요.

종단 포교 문화 사회 신행 전체뉴스 실시간뉴스 포토뉴스 행복한불서 이슈&피플 세계불교 전국 날짜별뉴스

뉴스 인 뉴스 청년불매 불자 국회의원 대불련 총동문화 포교, 꽃 피우다 게을 한국불교를 말하다 불교용어 나들이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HOME 실시간뉴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빗줄기 뚫고 호국성지 표충사 참배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16 13:30

댓글 0



며칠 만에 순례자들 앞길에 다시 쏟아지는 빗줄기.

침체된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전 세계인의 고통이 된 감염병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걸음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이합니다.

얕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마저 급격히 떨어지자 순례단원들은 최대한 옷깃을 여밈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종일 내린 비로 지쳐갈 때쯤, 조금은 어눌하지만 순례단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집니다.

[현장음]

달리는 스님이자 자비의 마라토너로 알려진 진오스님 도움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입니다.

베트남과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각국의 불자와 스님들은 순례단이 지나는 곳곳에 들러 계속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전체뉴스



2021년 10월 19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8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6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진관사 찾은 팬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에



물라상이 인도불교 복원 수행지도자 양성



3D 프린터로 빚어낸 석불..안한식 전시회

산트시리스님 / 구미 마하이주민센터 지도법사

(우리는 문화가 달라요. 근데 한국 스님들은 걷기도 많이 하고, 참선도 하는데요. 스님들이 이런 순례도 하고 마음 편하게 부처님 향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굵은 빗줄기에 지친 순례단은 동남아 불자들의 단합된 응원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꾸준히 베트남 소수민족 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온 진오스님도 깜짝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강용한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원

((외국인이) 천리순례하는 걸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요.)

진오스님 / 구미 마하뵈다사 주지

(베트남 소수민족 마을에 화장실 올해 4개 다 지었거든요. 아마 그 분들이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연락해서 오신 것 같고요. 그냥 고맙네요.)

순례단은 이날 약 24km를 걸어 호국성지 표충사에 도착했습니다.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사명대사 영전에 차 공양을 올리고, 굶은 날씨에도 성원을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년 전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입승으로 정진한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은 당시 받은 사부대중의 응원을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순례단을 반겼습니다.

진각스님 / 밀양 표충사 주지

(상월선원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회주스님 모시고 정진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순례단원, 그때 다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직접 맞이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해발 1000m 높이의 사자평을 넘기 위해 표충사에서 16일째 일정을 마무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가사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분황사는 신라왕경 중심지..유적정비 시급

(삼보사찰 천리순례 14) 호국정신 되새겨

조계종 사노위 “기후위기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삼보사찰 천리순례 10) 지역민들의 배려에 감동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취규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S**